정보를 퍼주는 남자, 김달진

미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다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만큼 미술 역사를 남기는 작업 역시 중요하다. 미술 기록 수집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미술 수집 전문가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의 김달진 관장을 만났다. **Editor** 이채영 **Photographer** 오충근

우리나라 근 · 현대 미술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찾았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의 주인장, 김달진 관장은 이미 국내 미술계에서는 유명 인사다. 30년 동안 미술 자료를 모으며 반평생을 보낸 그는 미술계의 마당발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은 경복궁 담장 건너 통의동의 한 허름한 건물 지하에 꾸며져 있었다. 편안한 동네 도서관 같은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낡은 물건 하나가 있었다. 유리장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는 이중섭 작품전의 리플릿. 53년의 세월을 입어 누렇게 빛바랜 낱장의 리플릿만으로도 이중섭을 만난 것처럼 반가웠다.

이중섭 작품전 1월 18일~1월 27일 미도파화랑

仲燮의 藝術이 어데다 뿌리를 박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 눈을 가로막는 것은 헐벗고 굶주린 한 그루 나무 가지에 서린 그의 슬픔과 生長하는 재능뿐인데 이 메마른 나무를 중심으로 그가 타고난 것을 잃지 않고 소중히 길러온 四十年을 모두어 開展을 가지는 것은 그로 보나 우리로 보나 즐겁고 뜻깊은 일이다. 앞으로 그의 藝術의 生長과 方向은 그 자신의 일이나 모진 戰亂 속에서 어떻게 용히 죽지 않고 살아 이런 일을 했나 하고 등이라도 한번 드둘겨주고 싶다. – 리플릿에 실린 김광균(金光均) 시인의 축사

살아서도 죽어서도 굴곡 많은 삶을 산 천재 작가 이중섭의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개인전(1955년)의 흔적이 살아 있는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모진 가난에 쫓겨 가족을 일본으로 보내고 사무치는 그리움에 아파했던 이중섭을 간접적으로나마 만날 수 있었다. 지인들의 도움으로 마지막 희망을 품고 준비한 전시였지만 결국 쓰디쓴 좌절만을 안고 그 이듬해(1956년) 가족을 만나지도 못한 채 쓸쓸히 사라져간 그의 삶이 느껴져 다시 한 번 가슴이 무거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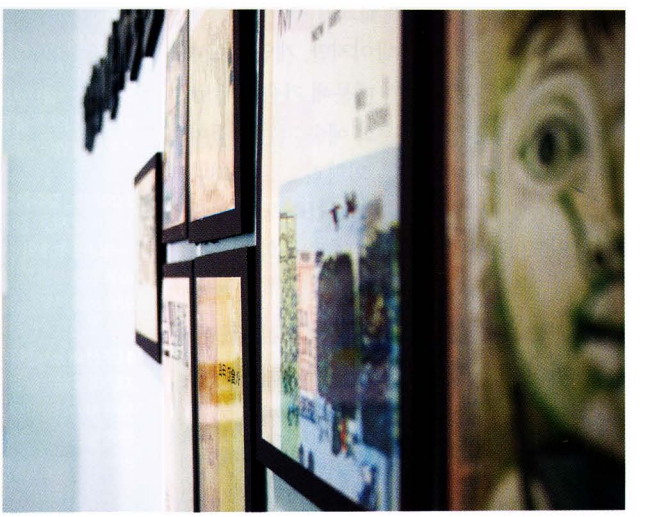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은 큰 규모는 아니지만 미술 서적과 미술 관련 희귀 자료들이 합리적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1928년판 국내 서화가의 인명 사전인 〈근역서화징〉을 비롯해 독일인 에케르트가 쓴 1929년 〈조선 미술사〉 초간본, 1932년판 〈오지호 김주경 2인 화집〉 등 단행본 및 작가 화집이 6500여 권, 정기 간행물 2500여 권, 미술 학회지 200여 권, 논문 150여 권, 팸플릿 1만여 점, 이중섭 · 박수근 · 김환기 · 이상범 · 백남준 등 주요 근대 작가 작품 도판 280여 권이 전시되어 있다.

이렇게 수많은 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은 지난 3월에서야 2종 전문 박물관으로 정식 등록 되었다. 자료의 양으로 본다면 오래전에 등록되었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다 보니 늦은 감이 있다. 박물관을 둘러보는 기자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김달진 관장은 모든 자료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모두 다 그가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얻은 자식 같은 자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리라.

어려서부터 꼼꼼했던 그는 당시 유행했던 우표와 화폐, 상표 등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여성 월간지 〈여원〉에 실린 '이달의 명화'를 모으면서 그림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화파별로 모은 서양 명화의 스크랩이 꽤 두툼해졌을 즈음인 1972년, 당시 경복궁 내에 있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 근대 미술 60년전'을 보며 우리나라 근대 미술의 매력을 처음 느꼈다. 이중섭, 박수근, 이상범 등의 작품을 본 이후부터 우리 근대 작가들의 자료를 모으기 위해 청계천 헌책방을 제집 드나들듯 드나들며 자료를 찾았고, 신문이나 잡지에 난 미술 관련 기사는 모조리 오려 스크랩했다. 어린 그에게는 전시회 리플릿 하나도 소중한 보물이었다.

이런 별난 수집벽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이어졌다. 특별한 취미는 그의 첫 직장을 고르는 데도 영향을 주었다. 그는 미술 잡지 월간 〈전시계〉에서 3년간 기자 생활을 했다. 그 후 15년간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에서 근무한 후 1996년 가나아트센터 자료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에게 직장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꿈을 펼치기에는 아쉬움이 남았다. '걸어 다니는 미술 사전', '금요일의 사나이'라는 별칭이 붙기까지 쌓아왔던 내공을 바탕으로 그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미술계 정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나아트센터를 그만두고 독립하게 됐다. 2002년 월간지 〈서울 아트 가이드〉 창간이 그 시작이었다. 지금은 약 200여 페이지의 미술 전문 정보지이지만, 당시에는 약 8페이지짜리 접이식 가이드북으로 누구나 쉽게 갤러리 위치에서부터 어떤 전시를 언제 어디서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만들었다.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인사동을 거니는 사람들 손에 〈서울 아트 가이드〉를 들려줬고 현재의 박물관을 있게 해준 일등 공신이 되었다.

그의 명함에는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장, 김달진미술연구소장, 〈서울 아트 가이드〉 편집인 이라는 세 개의 타이틀이 있다. 다른 듯 보이는 세 개의 타이틀의 공통점은 자료(정보) 수집이다. 30년의



내공과 정보력이라면 속된 말로 미술판을 훤히 볼 수 있을 듯해 그에게 미술품 투자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간단하고 명료했다. 그에게 그림은 사고 싶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

"좋은 작품은 많이 보았지만 보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일들은 미술계의 흐름을 볼 수 있게 자료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또 그림을 구입할 만한 경제력도 없습니다. 작품을 구입하는 목적은 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작품을 즐기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돈만 있으면 특정 작가의 작품을 화랑이나 경매장에서 구입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품을 산 가격에 되파는 건 무척 힘든 일입니다. 구입한 화랑에서조차 사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 자신이 소장하면서 즐기고 싶은 작품을 사야 하는 겁니다."

미술 자료에 있어선 누구보다 욕심 많은 그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다. 서울의 문화 중심지인 인사동에 미술정보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다. 현재 박물관에 소장된 자료 이외에도 고향 충북 옥천에서 잠자고 있는 4.5톤 분량의 자료를 제대로 정리해 자료화해야 하는데 현재의 공간으론 턱없이 부족하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예술 표현이 다양화되었듯 이를 자료화하는 시스템도 걸맞게 첨단화되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필요할 때 바로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이지만, 개인으로서는 경제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최근 정부의 문화 예술 지원 정책이나 기업의 문화 마케팅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전시, 행사, 창작 스튜디오, 건축 등에 치중되어 있고, 모든 일의 근간인 자료 문화 인프라 구축은 등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자체나 기업의 후원으로 100여 평의 공간만 인사동에 마련할 수 있다면 30년간 축적해온 기반을 바탕으로 미술계 발전을 위해 기꺼이 자료를 공유하고 싶은 게 그의 소망. 이를 위해 문화관광청과 한국메세나협의회 등에 '인사동 미술정보센터(가칭) 설립 제안서'를 제안하고 있다.

1 〈조선 미술사(History of Korean Art)〉
지은이 안드레 에카르트
발행처 London Hiersemann **발행 연도** 1929년
일제 강점기에 경성제국대학 등지에서 조선 미술사를 강의했던 독일인의 저서. 건축, 조각, 탑, 회화, 도자, 공예, 불교 미술 등을 종류별로 담고 있으며, 510여 장의 유적 및 유물의 사진과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

2 〈근역서화징(槿域書畵徵)〉
지은이 오세창 **발행처** 계명구락부 **발행 연도** 1928년
우리나라 서화가사전(書畵家辭典)으로 서적, 고서화, 금석탁본 등을 토대로 한 1117명의 화가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3 〈오지호, 김주경 2인 화집〉
지은이 오지호, 김주경 **발행 연도** 1938년
우리나라 최초의 원색 도판 화집. 한국 인상주의 화풍을 정립시킨 두 화가의 회화 세계뿐만 아니라 미학과 예술론을 담고 있는 두 편의 글도 실려 있다.

4 〈조선 미술사 연구〉
지은이 윤희순 **발행처** 서울신문사 **발행 연도** 1946년
유채 화가이자 미술 비평가인 윤희순이 신문과 잡지 등에 발표했던 한국 미술 관련 글들을 묶은 책. 고구려 벽화와 조선 시대의 회화를 주로 다루고 있다.

'관람객은 속고 있다. 미술 자료 기록의 허구'는 그의 날카로운 시각과 정확하고 풍부한 데이터베이스가 돋보였던 기고문이다. 이후에도 '미술 정보의 생산관리, 새로워져야 한다.', '해도 너무한다. 누가 역사를 그르치는가, '미술 공모전의 문제점' 등 미술계 전체 흐름에 대한 비판이나 현상을 짚어내는 글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한때 미술계에선 '문제만 들춰내는 사람'이란 오해도 받기도 했지만 그는 미술 자료를 모으는 사람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미술 자료 모으는 것에 미쳐서 취미도 한번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30년 동안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생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큰 행운이 주어졌기에 취미 생활을 즐기는 작은 행운은 포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큰 행운은 그가 그토록 열정을 쏟아 붓고 있는 미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스스로 장식할 수 있는 기쁨도 주었다.

다음에 만날 때는 인사동의 미술정보센터에서 만나지는 김달진 관장의 인사처럼 가까운 미래에 그곳에서 자료를 찾고 있을 내 모습을 그려본다. GL